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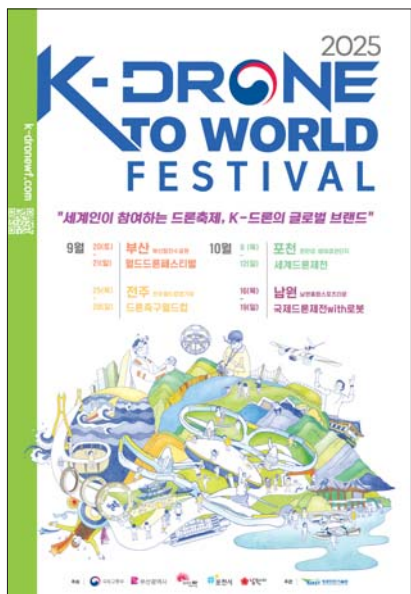
부산·전주·포천·남원서 ‘K-드론’ 글로벌 축제 발판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열어
K-드론 글로벌 브랜드화 도모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부산, 전주, 포천, 남원에서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릴레이 축제의 형태로 개최된다.

행사는 오는 20일~21일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5일~28일 전주 드론 축구월드컵, 10월 9일~12일 포천세계드론제전, 10월 16일~19일 남원 국제 드론제전으로 이어 개최된다. 우선, 부산시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의 서막을 알리는 ‘2025 부



‘K-Drone to World Festival’ 포스터.

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는 21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해외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인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32개

국 265개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 ‘FIDA(국제드론축구연맹)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한다.

FIDA는 2022년 12월 우리나라 주도로 결성됐으며, 2024년 열린 제1회 총회에서 2025년 9월 대한민국 전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확정된 바 있다.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무대로, 최대 6000대 규모의 국내 최대의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명 비트박스그룹(비트펠라하우스)과의 콜라보 공연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시는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를 열고 드론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내 개발 드론레이싱 리그인 DFL(Drone Formula League) 국제대회를 비

롯해 드론축구, 드론농구 등 다양한 드론스포츠 경기를 개최한다.

행사기간 중 해외 드론레이싱 리그가 참여하는 국제드론레이싱연맹을 창설한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리그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DFL을 중심으로 국제연맹을 출범시키는 협약식도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연맹 창설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27년 세계 드론레이싱월드컵’을 남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각 지자체들에게 K-드론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삼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드론 레저 스포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드론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현재 기자 hjkoo@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기장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선정

부산 기장군은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온 정관읍 방곡지구가 행정안전부 ‘2026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최종 선정지로 확정,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 완료 시 약 5.4ha 면적의 상습 침수구역에서 근본적인 재해 위험이 해소돼 주민 안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향상 효과가 예상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내달 2일까지 정책 제안 공모전

경북도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 경상북도 정책 제안 공모전’을 열고 도정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경북 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 과학·산업, 에너지·환경, 보건·복지, 농축산·수산업, 전통문화·예술, 도정 혁신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제출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경상북도 기관홈), 전자우편, 일반 우편, 방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정읍시

입영 청년에 입영지원금 지급

정읍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총 182명의 청년이 18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시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지역 청년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앱(chak)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창원시

市 전역서 청년주간 축제 열려

창원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2025 창원 청년주간 ‘창원청년 함께 온: 나’를 시 전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인 창원청년 함께 온: 나는 청년들이 함께 모인다는 방언적 표현과 ‘온(on)’과 ‘나’를 결합한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표출하는 가치들로 청년주간을 채워간다는 취지다.

이번 청년주간은 창원시와 창원창년비전센터에서 주관하는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관계 기관과 기업·단체도 협력해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산청군, 호주서 농식품 2.7만弗 판매

시드니서 농식품 홍보 판촉전 열어
총 7개 업체·17개 농특산물 선보

산청군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한 농식품 홍보 판촉전에서 상당한 판매 성과를 올렸다.

산청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농식품 홍보 판촉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촉전은 해외 수출 판로 확대와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품목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드니 대표 한인 유통 매장인 서울 마트 호른스비점과 웨스트라이드점에서 진행한 판촉전에는 총 7개 업체가 참가했다. 꽃감, 참기름, 건나물류, 도라지배정, 쌍화차 등 17개 품목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2만 7000달러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

제품 시식 및 설명을 통해 산청 농식품의 우수 성과 전통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산청군은 세계 농식품 시장의 개방



산청군 호주 시드니 농산물 홍보판촉전.

/산청군

화 추세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급변하는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출 기반 마련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캐나다 판촉전을 비롯해 10~11월 미국 판촉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의령군, 풍수해 생활권 정비 공모 선정

정비 사업비 398억 확보

의령군이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의령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정 백야지구 정비 사업비 3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규 지구 3곳을 포함한 총 16개 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15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2026년에는 280억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8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중앙 부처 및 경남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의령군의 전략적 공모 사업 발굴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하천, 저수지, 급경사지 등 단위 시설별

재해 위험 요소를 종합적이고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도비 지원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각종 행정적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선정된 지정 백야지구는 백야천과 성당천의 반복적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지속된 지역이다. 의령군은 이 지역에 제방 축조, 배수 펌프장 증설, 교량 재가설 및 신설, 유입 수로 설치, 낙석 방지망 설치,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이와 별도로 화정 덕교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가래 개성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등 기타 재해 예방 관련 공모 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되며 소규모 재해 위험 요소까지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

경남도, 내달부터 32% 인하 추진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총 32%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마창대교와의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절감액을 활용한 것이다. 경남도는 국제중재에서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총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사진)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재정절감액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의적인 활용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20% 할인에 12% 추가 할인이



더해져 총 32% 할인이 적용된다. 민선 8기 기간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2030년 6월까지 추가 할인을 시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 이용 비중은 전체의 34%에 달하며 이 중 80%가 도민이다. 하루 평균 출퇴근 차량은 1만 6000대이며 이 중 약 1만 2800대가 경남도민이다.

추가 할인 적용 시 소형차량은 2500원에서 1700원으로 800원, 중형차량은 3100원에서 2200원으로 900원, 대형차량은 3800원에서 2700원으로 1100원, 특대형차량은 5000원에서 3500원으로 1500원 각각 인하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지역경제 살릴 ‘골목맛집’ 선정

선정된 20곳에 인증 현판 수여
공식 홍보채널 등 다각적 지원

포항시는 지역 골목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미식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한 ‘포항골목맛집 20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읍면동과 시민 추천, 영입주 자율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접수된 71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시민투표, 전문가 암행평가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포항골목맛집 20선’에는 금돼지고깃집(대이동), 김나운찜쌀떡(우창동), 대잠맨션우드

파이어(장량동), 망고찜지(상대동), 멕시코코(두호동), 삼육식당(오천읍), 영일대해담(두호동), 오대양물회(중앙동), 오렌지스네이크(환여동), 우항원(중앙동), 임곡원조춘전닭갈비(동해면), 장룡민물장어(해도동), 총각네상회(상대동), 카페브리아(장량동), 쿠마스시(우창동), 포항수타(장량동), 팔할매떡볶이(중앙동), 함박웃는룻(오천읍), 해풍미당(장량동), 흥해시래기(상대동) 등이 포함됐다.

시는 최종 선정된 업소에 ‘포항골목맛집’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공식 홍보채널과 맛집 안내서, 인플루언서 홍보 등을 통해 다각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